

취약청년에 대한 선제적 맞춤형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UP(業)!

- 현장담당자·전문가와 청년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방향 공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5일(화) 16:00, 「청년 고용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년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청년 고용상황에 대응한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을 함께 공유했다.

* 참석: ▲ (현장담당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국민 취업지원제도 담당자 ▲ (전문가) 김유빈·길현종(노동연), 노민선(중기연) 연구위원

'23년 7월 청년 고용률은 47.0%로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고용률은 지속 상승 중이나, 15-24세를 중심으로 청년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기저효과·인구감소 등, △13.8만명), 경제활동 없이 쉬었다는 청년이 증가('23년 7월 40.2만명)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도에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한 한시사업 종료, 집행부진 등에 따른 감액 재원을 취업취약 청년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청년 수요에 맞게 중점 투자하여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①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재학생단계부터 진로탐색, 직업훈련, 경력개발 경로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대학 12→50개교, 고교 지원 신설)
- ② 구직단념청년 자립지원 확대와 함께, 니트(NEET) 청년 발굴·예방을 위한 플랫폼 신설(구직의욕 고취, 일경험, 직장 조기적응 등 종합지원)
- ③ 인력 미스매치 완화 및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을 신설(1인당 최대 200만원)하고,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 취업 수요에 맞춰 첨단산업분야 직업훈련 등 확대(K-디지털 트레이닝 3.6만명 → 4.4만명)

- ④ 청년이 선호하는 일경험 지원을 확대하고,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데 부담이 없도록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24년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한 고용노동부 발제에 이어, 현장 담당자와 전문가들은 현장의 청년 일자리 상황을 전달하고, 청년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민간 경제·산업의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면서, 민간이 창출한 일자리와 청년취업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선제적·맞춤형 고용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취약청년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좋은 청년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참여해 달라”는 당부도 함께 전달했다.

붙임1 「청년 고용 현장간담회」 개요

붙임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붙임3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종호 (044-202-7440)
		담당자	사무관	조아라 (044-202-7458)



☐ 일시 및 장소

- 9.5 (화) 16:00~17:30, 서울청 아카데미홀

☐ 참석자

- (고용부) 장관, 고용정책실장, 청년고용정책관, 서울고용센터 소장 등
- (현장 담당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 담당자 등
- (전문가) 김유빈·길현중(노동연구원), 노민선(중기연구원) 연구위원

☐ 주요 내용

-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공유(발제: 고용부)
-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년 일자리 상황, 정책 과제 등 자유 논의

<현장간담회 세부 계획>

* 인사말씀까지 공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6:00~16:05(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청년보좌역(진행)
16:05~16:10(5')	· 인사말씀	· 장관
16:10~16:20(10')	·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보고	· 청년고용기획과장
16:20~17:20(60')	· 청년 일자리 상황, 정책 과제 등 자유 논의	· 참석자
17:20~17:30(10')	· 마무리	· 장관

여러분 !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일선 현장에서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시는
서비스기관 담당자분들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년 일자리 상황이 어떠한지 확인하고
내년도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청년고용률이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으나,
과거 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10대와 20대 초반 청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하고,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활동 없이 단순히 쉬고 있는 청년이
약 40만 명('23.7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빈일자리수가 20만명을 상회하는 등
인력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금이나 조직문화에 대한 청년의 기대와 기업현실 간 차이가 있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청년 고용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취약청년에 대한 선제적 맞춤형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내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했던
한시 지출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집행부진 등에 따른 감액 재원을
청년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구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대와 20대 초반 청년들을 위해
고교 또는 대학 재학생 단계부터 조기개입하여
진로탐색, 직업훈련, 경력개발 경로 설정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둘째 ‘쉬었음’ 청년 다수가 직장 경험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취업 초기의 직장 적응과 실업 초기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청년 니트(NEET) 예방을 위한
토탈케어 서비스(가칭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셋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빈일자리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신기술분야 인력양성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실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시장 현실과
청년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민간과 협업하여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도 50% 지원하여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청년 정책의 효과가 배가 되려면
여기 제신 현장담당자와 전문가 여러분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소중한 정책적 제언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 최근 고용상황에 대응하여 취약청년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여 취업역량 강화 집중 지원

- ☞ ① 재학단계부터 **조기개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② **니트(NEET) 탈출** 뿐만 아니라 **예방·발굴**까지 선제적 지원
- ③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신기술분야 **인재양성 확대**
- ④ 청년이 필요로 하는 **일경험 기회 확대** 및 **자격시험 응시료부담 경감**

◇ 조기개입을 통한 재학생 맞춤형 서비스 확대

□ **(현황)** 재학단계부터 직업 탐색, 진로 결정 등에 애로 → 고졸·초기 구직단계인 10대·20대 초반 청년 중심으로 고용률 둔화

* 25~29세 고용률 증감(전년비, %p): ('21.7) 1.7 ('22.7) 2.7 ('23.7) 0.8, 27개월 연속('21.3월~) 증가
15~24세 고용률: '23.7월 28.9%(△1.6%p), 6개월 연속('23.2월~) 감소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인식조사('22년, 복수응답)

· 구직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① 본인의 적성·흥미 파악 어려움(57.3%) → ② 경험·경력 부족(52.4%) → ③ 학력·자격증 등 정량 스펙 부족(48.0%) → ④ 원하는 일자리 부족(47.1%)

□ **(방향)** 재학생 단계부터 조기개입하여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 대학 저학년은 진로탐색, 고학년은 훈련·일경험 기회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23. 12개 → '24안. 50개)

* ▲ (빌드업) 대학 1~2학년 중심 시 기반 직업탐색, 1:1 심층상담, 직업 포트폴리오 설계 등 지원
▲ (점프업) 대학 3~4학년 중심으로 컨설턴트와 취업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맞는 고용 서비스(훈련·일경험 등)를 최대 1년간 제공

- 대학 취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직업계고, 비진학 일반계고 학생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24안. 20개 대학)

* 심층상담, 진로·직업체험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경력개발 경로(정규교과, 자격증 취득 등), 장기 성장 경로(선취업-후학습, 진학, 병역 등) 로드맵 마련·제시

○ 권역별로 본교 학생 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취업지원까지 지원하는 대학일자리+센터 확충('23. 99개 → '24안. 120개)

■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 <23> 407억 → <24안> 831억

↳ ▲ 고교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신규 62억) ▲ 대학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304억), 대학일자리+센터(+21개)

◇ 니트(NEET) 탈출 뿐만 아니라 예방·발굴까지 선제적 지원

- **(현황)** '21~'22년 고용회복에 따라 '쉬었음' 청년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3.7월 40.2만명으로 금년부터 증가 추세

* 청년 쉬었음 인구(만명): ('16)26.9 ('18)31.3 ('20)44.8 ('21)41.8 ('22)39.0 ('23.7)40.2
청년 쉬었음 증감(만명, 전년비): ('16)△3.8 ('18)1.4 ('20)8.8 ('21)△3.0 ('22)△2.9 ('23.7)4.0

- '쉬었음' 청년의 74.9%가 직장 경험 有('22.8월)

- **(방향)** 니트(NEET) 탈출 뿐만 아니라 니트 예방·발굴 선제적 지원

- 자신감 고취,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구직단념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 프로그램 유형을 다양화하고 ('24안) ①도전(1월) ② 신설 도전+ I(3월)③도전+ II(5월)>
지원인원 확대 ('23.) 8 → ('24안) 9천명(+1천명)

-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취업 초기 청년의 직장 적응 및 실업 초기 청년의 일상유지 지원 등을 통해 '쉬었음'으로 전환 방지를 위한 토탈케어 서비스 신설(^{가칭}청년성장프로젝트, 10개 지자체)

* (니트 예방·발굴) 자조모임, 집단·심리상담 등 단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유지 지원 + 필요한 청년정책(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연계(정책 gateway)

* (기업 적응지원) CEO, 인사담당자, 중간관리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및 입직 청년에 대한 온보딩 프로그램(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안내·교육) 등 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 <23> 408억 → <24안> 706억(+298억)
↳ ▲청년도전지원사업(+17억, 9천명) ▲신규청년성장프로젝트(+281억, 지자체(10개) 연계 니트 사전예방·발굴 등)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확대

- **(현황)** 구조적 미스매치 심화로 빈일자리 등 인력난 지속,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력도 부족

* 빈일자리 수(만명): ('23.1) 18.4 (2) 21.5 (3) 21.3 (4) 21.6 (5) 21.4 (6) 21.4

- **(방향)** 빈일자리로의 매칭 지원 및 신산업·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인력양성 확대

-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취업성공수당, 근속지원금)을 지원하는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신설('24안. 2.4만명)
- 직업계고 학생·교원 대상으로 민간전문훈련기관을 통한 신기술분야 직업훈련·연수를 지원하는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확대('23. 55 → '24안. 75개 학과)
- 기업수요에 맞춰 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범위를 디지털 분야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23. 3.6만명 → '24안. 4.4만명)

- 빈 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신규 483억): 빈 일자리 취업 후 3개월째 취업성공수당 100만원, 6개월째 근속지원금 100만원 지원(청년 2.4만명)
- 미래유망분야고졸인력양성 : <23> 75억, 55개 → <24안> 118억, 75개
K-Digital Training: <23> 4,163억 → <24안> 4,732억(+0.7만명)

◇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확대

- (현황) 최근 채용시장에서 실무경험과 경력, 자격 등을 중시함에 따라 청년들도 다양한 일경험 기회 확대 요구

* 청년이 가장 바라는 취업서비스는 '직무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확대'(73.7%)
<'21년,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 (방향)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경험 지원 확대 및 국가기술자격 응시 등 취업활동 부담 경감 지원

- 민간협업에 기반하여 기업탐방, 프로젝트, 인턴, 기업 ESG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2.6→4.8만명)하고, 일경험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 편의성 제고
- 청년들이 부담없이 취업에 필요한 자격·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할인 지원('24안. 56만명)
- K-Move 스쿨 연수기간동안 연수 장려금(1인당 최대 100만원)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 강화

- 청년일경험지원 : <23> 553억 → <24안> 1,663억
↳ ▲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형 확대(2→4만명), ESG형 8천명 ▲일경험 통합플랫폼 구축 등
-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신규 242억):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할인 제공
- K-Move 스쿨 : <23> 201억 → <24안> 324억(▲지원인원 확대(+1천명) ▲신규 연수 장려금 신설(+28억))